

現代 略語의 새로운 특징*

— 2016~2020년 신어를 중심으로

鄭美玲**

- | | |
|-----------------|------------|
| I. 序論 | IV. 類推의 形成 |
| II. 略語에 대한 論議 | V. 結論 |
| III. 略語의 새로운 특징 | |

● 국문초록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약어는 기존의 약어 특성에 어긋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약어는 원말 참여 기저요소(단어 혹은 어절)에서 한 음절씩 선택되어 형성되는데, 최근에는 원말이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더이상 기저요소 개수(個數)에 기대어 약어의 음절 수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혐러(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와 같은 경우, 일부 기저요소를 ‘혐오’로 대체하고 나서, 대표 음절 ‘혐’이 선택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약어 형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영어 접미사 ‘어/러(er)’로 대체하였다. 사실 ‘사람’은 약어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거나,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어는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몇 약어에서는 의미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약어에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공유하는 계열체들이 증가하여 하나의 유추적 틀이 형성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다.

주제어 : 略語, 基底要素, 音節 選擇, 派生接辭 關與, 類推의 形成

*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졸업

I. 序論

흥미롭게도 최근에 MZ세대에서 기존의 단어 형성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다소 일탈적인 언어 표현 형식인 혼성어와 약어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언어 경제성을 고려하는 동시 일종의 언어유희처럼 창의적인 발상으로부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약어(略語)¹⁾는 최소한 둘 이상의 참여 기저단어 혹은 구(句), 절(節), 문장이 전제하고, 이러한 원말에서 단어마다 혹은 어절마다 한 음절씩 선택되어 형성된 것이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 ‘짬뽕, 짜장면, 볶음밥 → 짬짜볶’, ‘시선 강탈 → 시강’, ‘리플에 또 속았음 → 리또속’, ‘오늘 저녁 치킨 고 → 어저치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신어에서는 “치킨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치알못’과 같은 약어에서는 어절마다 음절이 선택된 것이 아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말에서 음절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기저요소를 대체하는 근거단어가 선정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대이병’처럼 “대학 2학년 포래의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명사형 ‘병(病)’으로 대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²⁾

기존의 연구 이선영(2016), 노명희(2019)에서는 약어는 원형식이 존재하고,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인접 개념어인 혼성어와 그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도를 믿는 사람 → 도믿맨’과 같이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인 것처럼 말을 건네며 다가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도믿맨’이 가진 원말의 의미에서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지시하는 의미 확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약어(略語)는 우선, ‘사이 → 새’처럼 단일어 내부에서 줄어든 형식인 ‘준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원말로 하여 각 단어에서 주로 한 음절씩 뽑아 만든 어휘”라고 해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개념적 정의에서 원말 범주를 ‘구(句), 절(節), 문장’으로 확장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물론 ‘대이병’과 같은 경우, ‘중이병’에서 유추적 기제를 통해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지닌 의미가 완전히 달라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이병’과 유사한 맥락을 가진 단어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대이병’을 유추가 아닌 약어의 특수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은 3.2.에서 기술하였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여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 여혐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속하는 지역 → 대경권’에서 보시다시피, 마지막 음절 ‘러(er)’, ‘권(圈)’처럼 파생 접미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결알못’, ‘바알못’, ‘파알못’과 같이 유사한 계열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X]N(x=어떠한\ 특정\ 분야)알못]N(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처럼 하나의 유추적 틀이 이루어져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약어를 살펴봄으로써 약어가 지닌 새로운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II. 略語에 대한 論議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어자료집에서 단어 유형별로 통계한 수치³⁾를 살펴보면, 합성어는 192개, 파생어는 197개(파생 접두사 19개, 파생 접미사 178개), 혼성어는 262개, 약어⁴⁾는 184개로, 약어의 비중이 가장 낮지만, 합성어 및 파생어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약어(略語)는 흔히 형태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데, Mattiello, E. (2013: 64)에서는 두문자어(acronyms), 이니셜(initialisms),⁵⁾ 절단어(clippings) 등 세 가지 단어 유형이 동일한 메커니즘을 공유한다고 기술하였다. 일찍이 노명희(2010: 261)는 한국에서는 자모 단위의 두문자어(ㄱ스(감사), 스크(사랑))가 통신언어세계 외에는 단어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한국어에서 ‘공감 능력 제로 → 공능제’, ‘보조 배터리 → 보배’, ‘시선 강탈 → 시강’처럼 참여 기저단어에서 한 음절씩 선택되어

3) 정미령, 「韓國語 混成語에 대한 연구-2016~2020년 신어자료집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3, 3면에서 제시된 <표 1-1>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4)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에서는 ‘축약어’로 지칭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약어’로 대체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5) 이니셜(initialisms)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어 두문자어를 대표하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TO’,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APEC’는 알파벳으로 발음하지 않고 한 단어로 발음된다. 이와 반면에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United States of America → USA’는 알파벳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어에서는 자음으로 형성된 것이 단어로 취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외하였다.

형성된 경우 약어에 해당한다. 여기서 모두 첫음절로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음운적 측면에서는 ‘두음절어(頭音節語)’⁶⁾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출산 휴가 → 산가’, ‘학과 이탈 → 과탈’⁷⁾과 같은 경우, 모두 끝음절이 선택되어 형성된 약어이다. 이처럼 약어는 음절 단위로 각각의 기저요소에서 한 음절씩 선택받아 결합한 것이 일반적이다. 노명희(2019: 28~29)에서는 기존에 약어는 주로 한자어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어종 제약없이 형성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절단어(clippings)와 같은 경우, 한 단어 내부에서 음절 경계로 절단되어 형성된 것으로 형식이 줄어든 약어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어 내에서는 약어 유형과 분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 유형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내비게이션(navigation) → 내비’, ‘프로페셔널(professional) → 프로’, ‘대검찰청 → 대검’은 모두 절단어에 속한다.⁸⁾

본고에서는 단어로 취급받지 못하는 두문자어와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 유형인 절단어는 논외로 하고, 몇 개의 참여 기저단어 혹은 구(句), 절(節), 문장 형식을 갖는 원말에서 각각의 기저단어 혹은 어절에서 한 음절씩 음절 단위로 선택받아 형성된 단어를 약어의 범주로 국한하고자 한다. 사실 이재현(2010: 48)에서는 축소어형을 가진 단어 유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준말이라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송철의(1993)에서 제시한 모음탈락형, 모음축약형, 활음화⁹⁾와 같이 음운론적 축소어형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약어의 범주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제외하였다.

이상에서 기존에 약어의 개념적 범주와 형성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최근에 형성된 약어에서는 새로운 특징들이 발견된다. 최근에 이호승(2014)에서는 기존의 통합적

6) 본고에서는 이러한 약어는 동시에 음운적 측면에서 ‘음절어(音節語)’에 해당한다고 보고, 첫음절로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는 ‘두음절어(頭音節語)’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7) 위의 예시는 노명희,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91, 국어학회, 2019, 30면에서 전부(前部) 절단형 약어의 예시를 가져온 것임.

8) 노명희,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57면에서 일부 예시를 가져온 것임.

9) 송철의,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23,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93, 38~46면에서는 모음탈락형에서는 ‘가을 → 갈’, ‘다음 → 답’과 같은 경우 이에 해당하고, 모음축약형은 ‘사이 → 새’가 이에 해당하며, 활음화에서는 필수적인 것과 수의적인 것이 있는데, ‘보아 → 봐’, ‘가꾸었다 → 가꿨다’처럼 수의적인 경우, 준말에 해당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혼성어¹⁰⁾와 약어의 변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 노명희(2019)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둘 사이에 갖는 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약어는 원칙적으로 원말이 존재하지만, 혼성어는 원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약어는 원말의 참여 기저요소(단어 및 어절)의 개수(個數)에 근거하여 최종 약어가 갖는 음절 수가 정해지는 반면, 통합적 혼성어에서는 참여 기저요소의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한 음절씩 선택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이가 있다. 세 번째는 약어는 원말에서 유의미한 음절이 선택되는 반면, 혼성어에서는 내부 구조가 갖는 형태소 경계와 상관없이 재분석(reanalysis)¹¹⁾ 과정을 통해 절단되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약어는 원말과 같은 문맥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많고, 비격식성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더불어 이선영(2016: 276)에서는 약어가 갖는 특징에 대해, 원말이 존재하므로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다고 봐도 무방하고, 원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약어에서는 원말의 기저요소 개수에 대응하여 한 음절씩 선택받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저요소에서만 음절 단위로 선택받아 약어를 형성하고 있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혐리(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처럼 원말의 일부 기저요소를 대체한 단어에서 한 음절이 선택되어 약어에 관여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저단어 ‘사람’이 갖는 의미에 대응되는 파생 접미사가 대체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명희(2019)에서 문제 제기되었듯이, 원말의 문법 범주와의 동일성 여부와 원형식 존재 여부에 대해 ‘낄낄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다)’와 같은 경우, 원말의 문법 범주와는 다른 범주를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쿵’과 같은 약어에서는 명확한 원말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약어가 관찰된다고 언급하였다. 무엇

10) Bauer, L., *A Glossary of Morpholog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4, 22면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두 참여 기저단어가 동시에 출현할 수 있는 유형을 노명희,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263면에서는 이를 통합적 혼성어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motorist hotel → motel’, ‘유비쿼터스 네티즌 → 유티즌’가 이에 해당한다. 상세한 내용은 노명희(2010)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11) 재분석(reanalysis)이란 Bauer(2004: 89면)에 해석한 내용에 의하면, 원래의 형태론적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최형용 외, 『한국어 신어 형성 연구』, 역락, 2022, 214면 각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존의 내부 구조의 형태소 경계와 상관없이 경계가 이동되거나, 원래 경계를 만드는 것, 경계를 없애는 등 모두 재분석 과정에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다고 약어는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보편적인 데 비해, 최근 약어에서는 원말이 가진 의미 그 이상으로 어떠한 것을 특정하여 지시하는 의미 확대 현상이 관찰된다.

사실 약어는 원말의 기저요소 중 유의미한 음절이 선택되어 형성되지만, 최근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유추적 틀이 형성되어 대치 조작을 통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Ⅲ. 略語의 새로운 특징

1. 약어의 음절 수

약어는 대체로 원말에서 각각의 기저단어 혹은 어절에서 한 음절씩 음절 단위로 절단¹²⁾되어 만들어진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기존의 약어 양상¹³⁾

- 가. ac형(ab, cd) → 강추(강력 추천), 공구(공동 구매)
- 나. bd형(ab, cd) → 산가(출산 휴가), 과탈(학과 이탈)
- 다. ad형(ab, cd) → 외시(외무 고시), 학고(학사 경고)
- 라. bc형(ab, cd) → 맹파(동맹 파업), 혼활(결혼 활동)
- 마. ace형(ab, cde) → 과포자(과학 포기자)
- 마'. ace형(ab, cd, ef) → 간선제(간접 선거 제도)
- 바. acf형(ab, cd, ef) → 지자체(지방 자치 단체)

12) ‘절단’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약어의 단어 형성 기제로 봤을 때, 선택 기제가 작용하여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어 형성 수단으로는 ‘절단’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용어가 모두 허용된다고 본다.

13) 이선영,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272면, 노명희,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91, 국어학회, 2019, 29~35면에서 일부 예시를 가져온 것임.

위의 예시 (1가, 나, 다, 라, 마, 마', 바)에서 보이는 것들은 모두 한자어 약어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1마)만 후행요소 ‘포기자’에서 두 음절이 선택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존의 약어에서는 ace형(ab, cde)을 제외하면 모두 참여 기저요소에 대응하여 한 음절씩 선택되어 형성된다.

하지만 최근 약어가 갖는 음절 수는 기저요소(단어 혹은 어절) 개수와 대응되지 않는 양상이 종종 발견된다.

(2) 기저요소에 의해 음절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 가. 남북러(남한, 북한, 러시아), 엄근진(엄격, 근엄, 진지), 따아(따뜻한 아메리카노), 치빠(치고 빠짐), 혼놀(혼자 놀기)
- 나. 덕계못(덕후는 계를 못 탐), 치알못(치킨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혼코노(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감)

위의 예시 (2가)에서 ‘남북러’, ‘엄근진’은 원말이 명사 나열형으로 각각의 기저단어에서 한 음절씩 절단되어 형성된 약어이고, ‘따아’, ‘치빠’, ‘혼놀’과 같이 원말이 절(節) 형태를 가진 경우에서도 최종 약어의 음절 수와 참여 기저요소의 수가 같다.

그러나 (2나)에서 ‘덕계못’, ‘치알못’, ‘혼코노’와 같은 경우, 원말에서 어절 수에 기반하여 한 음절씩 절단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을 타지 못함, 어떠한 사람, 어디에 감’ 문맥에서 핵심인 지시 대상과 용언에서 음절이 선택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3음절을 넘기려고 하지 않는 의도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약어는 말을 줄인다는 의미 그대로 일종의 간략한 언어 표현 방식인 만큼 음절 수가 늘어나면 말이 장황(張皇)해져 약어의 특성을 잃게 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어¹⁴⁾를 관찰해보면, 주로 3음절을 가진 약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4음절을 가진 약어도 종종 발견되지만, <표 3-1>에서도 확인되듯이 대체로 3음절을 가진

14) <표 3-1> 최근 약어의 음절 수 양상(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16~2019년)

음절 수/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음절	13개	8개	6개	12개	39개
3음절	37개	14개	20개	28개	99개
4음절	2개	-	2개	5개	9개
합계	52개	22개	28개	45개	148개

약어의 비중이 크다. 사실 김정윤(2020: 141~146)에서 논의한 내용에 의하면, 4음절을 가진 두음절어¹⁵⁾에서 원말은 주로 명사 4개 나열형 혹은 원말에서 용언이 포함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테면,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는 전자에 해당하고, 강약약강(←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를 부연하자면, 원말이 연결 어미 ‘-고’로 두 구절을 연결한 경우, 또는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지만’¹⁶⁾과 ‘-면’¹⁷⁾ 등을 통해 만들어진 문맥에서는 4음절을 가진 약어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위의 예시 (2나) ‘혼코노’의 원말에서는 이러한 연결 어미가 보이지 않아 3음절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원말에서 ‘사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대체로 약어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거나,¹⁸⁾ 관여한다 하더라도 1음절을 가진 영어 파생 접미사로 대체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약어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현상은 일종의 환유 과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대머리(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 ‘웅고집(억지가 매우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 ‘중매(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 등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을 형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속성이나 행위가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위의 예시 ‘치알못’과 같은 약어에서도 이러한 환유 현상이 작용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음절 대체 현상

약어는 원래 참여 기저요소(단어 혹은 어절)에서 한 음절씩 선택되어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런데 최근에 생성된 약어는 원말의 기저요소에서 선택된 음절이 아니라 일부 기저요소를 대체하는 근거단어가 선정되어 약어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15) 본고에서는 김정윤, 「4음절 형식 두음절어의 특징과 사용 요인」, 『반교어문연구』 56, 반교어문학회, 2020, 141~146면에서 논의된 두음절어는 약어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논의하기로 한다.

16) ‘할말하얏/할말하얏(←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김정윤(2020: 142면)에서 가져온 예시임.

17) ‘번달번춤(←번호 달라고 하면 번호 춤?)’, 김정윤(2020: 142면)에서 가져온 예시임.

18) 물론 예외가 존재하는데, 이를테면 ‘남사친’, ‘여사친’과 같은 경우, ‘사’는 기저요소 ‘사람’에서 선택되어 형성된 경우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3) 대이병(大二病)¹⁹⁾, 여혐러(女嫌<영>←er)

위의 예시 (3)에서 ‘대이병’은 “대학 2학년 또래의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 마지막 음절 ‘병(病)’은 원말에서 이에 대응한 어절을 찾아볼 수 없고,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나타내는 ‘병(病)’으로 대신하여 표현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대이병’에서는 명확한 원말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약어에 해당하는 특수 유형으로 보는 입장이다. 물론 ‘대이병’은 ‘중이병’에서 의미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적 기제가 작동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중이병’과 ‘대이병’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다. 이를테면, ‘중’과 ‘대’가 대체되었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중이병’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흔히 가지게 되는 불만이나 가치관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빗대어 이르는 말이고, ‘대이병’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X]-이병]N’에 의한 표면 유추로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특정 상태를 의미하는 ‘우울병’, ‘정신병’, ‘이수병’처럼 ‘X병’ 유추적 틀에 기대어 ‘중이’가 ‘대이’로 대체되었다고 가정할 때, ‘중이’는 어기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이 겪는 사춘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대이’는 아직 단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어떠한 특정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기존의 단어 형식과 유사하지만, ‘대이병’은 여전히 약어에 해당하는 특수 유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예시 ‘여혐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상태를 근거단어 ‘혐오’로 대체되고 나서 ‘혐’이 선택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을 원말로 가정한다면, 굳이 근거단어가 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혐오’를 사용한 예시를 살펴보면, “추악한 세상에 대한 혐오”, “부정 부패에 대한 혐오”로 쓰인 것에서 확인되듯이, ‘혐오’라는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여성혐오(여성을

19) 최근 약어에서는 명확한 원말이 존재하지 않아 원형식으로 복원 불가능한 것이 관찰되는데, 사실 ‘대이병’과 같은 경우, 명확한 원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지만 새로운 약어의 한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병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라는 말이 생겨 사용되고 있지만,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²⁰⁾은 오용된 문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혐오’로 대체하여 형성된 ‘여혐러’는 ‘여싫어’, ‘여미러’보다 의미 전달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고려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람’은 약어 형성에서 관여하지 못하거나, 영어 접미사 ‘어/러(er)’로 대체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최근에 생성된 약어는 참여 기저요소에 기대어 음절 선택이 이루어지는 제약 현상이 유연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원말의 문법 범주와 동일성 여부, 원형식 복원 가능성

노명희(2019: 36)에서는 약어는 원말을 전제하고 원말과 동일한 의미와 문법적 범주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의 약어에서는 원말의 문법 범주와 다르거나 원형식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양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4) 원말의 문법 범주와 다른 양상²¹⁾

가. 가싫남(가지고 싶은 남자), 갈비(갈수록 비호감)

나. 낄낄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낄빠빠가 정말 잘된다.”라고 칭찬을 해 훈훈함을 더했다.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나. 말잇못(말을 잇지 못하다.)

“너무 잘생겨서 말잇못” 방탄소년단 정국

《톱스타뉴스 2022년 6월》

‘런닝맨’ 생일상 받은 양세찬 ‘말잇못’

《NEWSIS 2021년 12월》

20) 사실 『우리말샘』에서도 확인되듯이, ‘여혐러’의 원말은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다.

21) 노명희(2019: 37면)에서 가져온 예시임.

위의 예시 (4가)에서 ‘가싶남’, ‘갈비’는 명사구에서 형식이 줄어든 약어이고, 동일한 문맥에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4나, 나)에서는 서술어구에서 형식이 줄어든 약어인데, 줄어든 ‘낄낄빠빠’, ‘말잇못’은 명사의 자격으로 인식되어 문법 범주가 달라져 서술어로 사용할 때는 ‘하다’²²⁾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실 최근 약어에서는 어떠한 통사적 구성에서 형성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명사 상당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노명희(2019)에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원말이 서술어구인 경우에는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술성 명사로 되어 ‘낄낄빠빠하세요’, ‘말잇못하다’처럼 사용되고 있다.

- (5) 가. 땀뺀(마음이 찢어짐)(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자료집』)
우리가 취재차 갔을 때에도 이 말을 듣게 되어 굉장히 ‘땀뺀’이었다.
《중앙일보 2016년 3월》
- 나. 뺨박(뺨도 박도 못하다.)²³⁾
OOO는 스스로 ‘랩 스타’라며 재치 있게 답변을 피해 갔지만 리얼리티라던 OOO는 시쳇말로 ‘뺨박’이었다.《쿠키 뉴스 2014년 11월》
- 다. 별다줄(별것을 다 줄임)(국립국어원, 『2016년 신어 자료집』)
하도 말을 많이 줄이다 보니 ‘별다줄’이란 말도 쓰인다.
《매경이코노미 2015년 10월》

위의 (5가, 나, 다)에서 보시다시피, 서술어 구에서 형성된 ‘땀뺀’, ‘뺨박’, ‘별다줄’은 모두 명사 상당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연결되어 용언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원형식으로 복원 불가능한 약어도 발견되는데, 이 말은 즉시 원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과 동일하다. 노명희(2019: 38)에서 논의된 ‘심쿵’²⁴⁾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뿔 정도로 놀라거나 설렘”을

22) 노명희(2019: 38면)에서 제시된 예시를 살펴보면, 서술어로 사용할 때는 ‘낄낄빠빠하세요’처럼 사용되고 있다. ‘말잇못’과 같은 경우, 역시 ‘말잇못하다’ 혹은 ‘말잇못이다’처럼 문장에서 쓰이고 있다(순방 다녀온 이낙연 총리, 부총리들 앞에서 말잇못한 사연은? 《국무조정실 2018년 12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심 미모 말잇못이다(《톱스타뉴스 2019년 08월》).

23) 노명희(2019: 37면)에서 가져온 예시임.

24) ‘심쿵’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일본에서 ‘胸キュン’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번역하면

표현하는 형식이 줄어든 약어이지만 정확한 원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사전에도 원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이처럼 원말을 특정하기 어려운 약어가 종종 관찰된다.

- (6) 공취생(公就生), 오유주(오<영>←universe宙),
입덕각(入<일>←otaku[御宅]角)

위의 예시 (6)에서 ‘공취생’은 최근 취업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무원 시험과 일반 기업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을 의미하는 말이다. ‘공무원’과 ‘취업 시험’에서 각각 한 음절씩 선택되고, ‘준비생’에서 ‘생’이 선택되어 약어를 형성하고 있지만, 특정한 원말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두 번째, ‘오유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습이나 우주처럼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잘 나타남”을 이르는 말로 감탄사 ‘오’와 ‘우주’를 뜻하는 외래어 ‘유니버스(universe)’에서 ‘유’가 선택되고, 마지막 ‘우주’에서 ‘주’가 선택받아 만들어진 약어로 보이지만, 이 역시 원말을 특정하기 어렵다. 마지막 ‘입덕각’에서는 “어떠한 대상이나 인물을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데, 첫음절 ‘입(入)’은 어떠한 분야에 ‘입문한다’에서 선택받은 것으로 짐작되고, 두 번째 관여 음절 ‘덕’은 ‘오덕후’에서 선택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존 명사인 ‘-각(角)’은 최근 신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사전의 해석에 따르면, “(명사 뒤에 쓰이거나 어미 ‘-을’ 뒤에 쓰여)어떠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나 분위기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어떤 일에 대해 마땅히 그렇다고 여길 만한 상황”을 의미하는 ‘인정각(認定角)’,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일컫는 ‘자살각(自殺角)’처럼 어떠한 조짐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말에 두루 쓰이고 있다. 이상에서 ‘공취생’, ‘오유주’, ‘입덕각’과 같은 경우, 원말을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약어에서 극히 드문 유형이지만 여전히 약어의 일종으로 특수 유형에 해당한다.

‘심장이 쿵’, ‘가슴이 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용이 산다”라는 웹툰에서 귀여운 캐릭터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심장이 쿵쿵거리다’, ‘심장이 쿵광쿵광거리다’, ‘심장이 쿵’처럼 여전히 원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4. 의미 확대 현상

약어는 형식적으로 축약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의미상으로 원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한편, 혼성어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므로 둘 사이에 구별된다고 보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이는 약어에서는 원말이 가진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7) 가. 도민맨(도민<영>man) ← 도를 믿는 사람
 나. 커피발(<영>←couple커피발) ← 커플 바퀴벌레 발
 다. 피성안 ←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위의 예시 (7)에서 보시다시피, 원말이 존재하고 원형식의 기저요소에서 한 음절씩 절단되어 만들어진 약어이다. 하지만 의미적 측면에서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였다기보다 새로운 것을 지시하는 의미 확대 현상이 관찰된다. 첫 번째 예시 ‘도민맨’은 도를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인 것처럼 말을 건네며 다가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지시하고 있어 기존에 갖는 의미에서 의미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원말에서 의미 확대 현상이 일어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약어로 형성 이후에 생긴 의미 확대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원말 ‘도를 믿는 사람’에서 이미 특정 부류의 사람을 일컫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 약어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의미 확대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원말 ‘도를 믿는 사람’이 일차원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 약어 형성 과정에서 의미 확대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²⁵⁾

다음 예시 (7나) ‘커피발’에서는 ‘커플 바퀴벌레 발’이 원말인데, 세 단어를 통합해 봤을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일컫는 것으로 한층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7다) ‘피성안’에서도 “최근 대학 병원에서 전공의를 모집할 때 매년 경쟁률이 높은 분과를 아울러 이르는

25) 정미령(2023), 29면, 30면, 37면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말”로, 단순히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말에서 의미 범주가 확장되어 약어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약어로 만들어진 다음에 의미 확대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유사한 맥락의 약어가 최근에 출현 되고 있다.²⁶⁾

5. 기타

최근에 파생 접미사가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8) 가. 대경(권)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속하는 지역
나. 마섹(녀) ← 마음이 섹시한 여자

위의 예시 (8)에서는 마지막 음절이 모두 파생 접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8가)의 원말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속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대경권’에서 마지막 음절 ‘권(券)’은 ‘범위 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지역’을 더하는 접미사가 대표하는 음절로 대체된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약어에서는 원말 기저요소에서 음절이 선택되어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원말에서 ‘지역’이란 단어는 약어 형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의미하는 접미사 ‘권’이 대체하여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으로 오는 ‘대경’은 어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대구’와 ‘경상북도’를 나타내기 위해 첫음절 ‘대’와 ‘경’이 선택되어 마지막 대체 음절 ‘권’과 결합하여 약어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약어에서는 마지막 음절 선택에 있어 파생 접미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된다.

(8나) ‘마섹녀’에서도 원말이 존재하고 원말이 가진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은 약어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음절 ‘녀’는 여자를 뜻하는 접미사이다. 통상적으로

26) 민보돌 ← 민고 보는 아이돌(노래나 춤 따위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말한다.), 대끝치 ← 대기업의 끝은 치킨집(근로자의 조기 퇴직이 찾아지고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이다.), 어걸치 ← 어차피 결론은 치킨집(근로자의 조기 퇴직이 찾아지고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에서 비롯된 말이다.) 등과 같은 약어도 의미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2016~2019년에서 가져온 것임).

약어는 원말 기저요소에서 음절이 선택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가 관여해야 하지만, 음운적 측면에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파생 접미사인 ‘녀’가 관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파생 접미사를 나타내는 ‘녀’가 의도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니면 음운적 현상을 고려하여 ‘여’를 ‘녀’로 대체하여 약어 형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9) 사람과 관련된 약어²⁷⁾

- 까도(남) ← 까칠한 도시 남자
- 까도(녀) ← 까칠한 도시 여자
- 만뚫(녀) ← 만화를 뚫고 나온 듯한 여자
- 미코(녀) ← 미니 백과 에코 백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여자
- 믿보(녀) ← 믿고 보는 여자
- 연못(남) ← 연애를 못하는 남자
- 연못(녀) ← 연애를 못하는 여자
- 연타(녀) ← 연금 타는 여자
- 연타(남) ← 연금 타는 남자
- 요색(녀) ← 요리를 하는 색시한 여자
- 혼사(녀) ← 혼자 사는 여성

또한, (9)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는 사람에 관련된 약어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 이처럼 ‘[X]-남’은 파생 접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원말의 마지막 기저요소에서 첫음절이 절단되어 형성된 약어로 볼 수 있다. 만약 접미사 ‘남’이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선행으로 오는 요소가 어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어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 여성’과 같은 기저요소가 참여한 원말에서는 사실 ‘여’가 선택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마땅한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음운적 측면에서 발음이 어색한 점을 고려하여 ‘녀’가 대체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어떠한 의도에서 ‘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27) 위의 내용은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2016~2019년)과 『우리말샘』 사전에서 최근에 등재된 신어를 가져온 것임.

(10) 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2016~2019년)에서 가져온 것임.

가. 공블(리) ← 공부와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나. 다꾸(리) ← 주로 다이어리를 꾸미는 사람

다. 여혐(리) ← 여성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흥미로운 것은 (10가, 나, 다)에서 보이는 ‘공블리’, ‘다꾸리’, ‘여혐리’는 기저요소 ‘사람’을 대신하여 영어에서 ‘행위자’를 의미하는 접미사 ‘(ee)’, ‘(er)’가 관여하여 형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리(ee)’, ‘어/러(er)’²⁸⁾가 접미사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경우, 파생어로 분석해야 하지만, 선행으로 오는 ‘공블’, ‘다꾸’, ‘여혐’은 어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여전히 약어에 해당한다.

IV. 類推的 形成

흥미롭게도 최근 약어에서 유추적 기제가 작동되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고 있다. 일찍이 채현식(2003: 1)에서는 인지적 관점에 따라 단어 형성은 규칙과 유추 두 갈래로 분류하였는데, 단어형성규칙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복합어의 형성은 ‘첨가’라는 형태론적 조작이 수반되어 단어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X+Y→XY’로 나타낼 수 있다. 유추적 형성 관점에서는 ‘대치’의 형태론적 조작이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쉽게 표현하면 ‘XY→ZY’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최형용 외(2022: 219~220)에서는 최근 신어에 대한 유추적 형성을 Mattiello(2017)에서 제시한 유추적 형성 분류 체계에 기대어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유추적 형성을 크게 표면적 유사성에 의한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로 나누고, 표면 유추에서는 의미론적 유사성과 음운론적 유사성에 기반한 유추로 분류하였다. 또한, 틀에 의한 유추에서는 모형 단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분류하였는데, 모두

28) 이선영, 「외래어 신어의 몇 가지 양상」, 『국어학』 87, 국어학회, 2018, 124~129면, 최유숙, 「혼종 신어 외래요소의 한국어 형태소화」, 『語文論集』 78, 중앙어문학회, 2019, 197~199면에서는 외래요소 접미사인 ‘어/러(er)’의 한국어 내에서 접미사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공유되는 요소가 계열체로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유추적 틀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표면 유추와 틀에 의한 유추는 통시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추적 단어 형성에서는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유사성이 작동되어 형성되기도 한다.

다음은 최근의 약어에서 관찰되는 유추적 형성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1) 소확[행] →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²⁹⁾

위의 (11)에서 보시다시피,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말에서 각 어절에서 한 음절씩 절단되어 형성된 약어이다. 이 말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小確幸(소확행)’은 일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쓴 《랑게르한스 섬의 오후(ランゲルハンス島の午後)》(1986)이라는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처럼 바쁜 일상에서도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의미한다.³⁰⁾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서, 한 취업포털 사이트(인크루트)에서 2,917명 남녀를 대상으로 유행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확행’이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확행’이 널리 사용하게 되면서 ‘소확횡’이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유추적 기제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음성적 유사성과 의미적 유사성이 모두 작동된 복합적 유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형용 외(2022: 235)에서는 어떠한 유사성이 더 우세한 지에 대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의 예시를 통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12) 가. 소확[행] → 소확[성](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

나. [소]확행 → [대]확행(크고 확실한 행복)

위의 예시 (12가) ‘소확성’에서도 ‘[소확-[X]]_N(소소하지만 확실한 [X])’처럼 유추적 틀로 공유되어 의미적 유사성에 의해 형성된 용어이다. (12나) ‘대확행’은 ‘소(小)’와

29) 최형용 외(2022: 234면)에서 가져온 예시임.

30) 나무위키(namu.wiki), 소확행, 검색일: 2023년 3월 7일

‘대(大)’가 반의 관계로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되듯이, 의미적 유사성이 더 우세하게 작동되어 형성된 경우라고 최형용 외(2022: 235)에서 기술하였다. 여기서 ‘대확행’은 ‘[[X]-확행]N([X] 확실한 행복)’의 틀에 기대어 ‘[소확-[X]]N(소소하지만 확실한 [X])’와 달리, 앞 부분에서 대치 조작이 형성된 경우다.

추가로 몇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 (13) 가. [가]성비 → [값]성비(값어치 대비 성능의 비율)
 나. [가]성비 → [나]성비(내가 만족하는 성능의 비율)
 다. 가[성]비 →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의 비율)
 라. 가[성]비 → 가[잼]비(가격 대비 재미의 비율)

위의 모형단어인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의미하는 약어인데, ‘[X] 성능의 비율’로 하나의 유추적 틀이 형성되어 새로운 용어가 형성되고 있다. (13가) ‘값성비’는 ‘가성비’와 의미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새롭게 형성된 용어이고, ‘나성비’도 ‘[[X]-성비]N’ 유추적 틀에 기대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13다), (13라)에서는 모형단어 ‘가성비’에서 ‘[개[X]비]N’ 중간 부분이 ‘심리적 만족의’ 또는 ‘재미의’가 대치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모형단어에서 다른 유추가 일어나 형성되기도 한다.

- (14) 자(자연스러운)만추 → [[X]-만추]N(어떠한 만남을 추구)
 인(인위적인)만추, 아(아무나)만추, 썸(썸싱)만추

위의 (14)에서 ‘자만추’도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낭만적인 또는 운명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데, 2018년에 유행어로 뽑힌 약어이다. 그 후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의미를 지닌 ‘인만추’가 유추적 기제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인위적인’은 모두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ㄴ’가 결합한 것으로 대치되는 단어의 지위가 동등하다. 하지만 “아무나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아만추’에서는 ‘어떠한 상태’의 만남을 뜻하는 ‘자연스러운’ 또는 ‘인위적인’ 만남과 달리 ‘아무나’에서는 ‘누구나’의 의미를 지니어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 ‘썸만추’에서는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귀는 듯이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추구하는 연애관'을 의미한다. ‘썸’은 ‘썸싱을 타다(There is something between us)’에서 비롯하여 생긴 절단어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썸만추’에서도 ‘자만추’에 관련한 ‘자연스러운’과 다른 지위의 단어가 관여하여 유추가 이루어진 셈이다.

- (15) 갑분싸(싸하다) → [갑분-[X]A/N(X=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명사)]N
 갑분떠(떠움), 갑분교(교장 선생님), 갑분굿(good)

위의 예시 (15)에서 ‘갑분싸’는 2018년 유행어에서 2위를 차지한 약어이다. 여기서 ‘[갑분-[X]A/N(X=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혹은 명사)]N’가 하나의 유추적 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X]의 자리에 언제나 어떤 상태를 보이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태를 반영하는 명사가 대치되어 유추적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대치 조작이 작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X]-알못]N’, ‘[[X]-잘알]N’은 최근 신어에서 빈번하게 생성되는 유형인데, 어떠한 특정 모형단어가 존재하기보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공유하는 요소의 계열체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유추적 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6) [[X]-알못]N, [[X]-잘알]N

가. [[X]N(X=어떠한 특정 분야)알못]N(x=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결알못(결혼), 공알못(공연), 공알못(공약), 바알못(바둑), 뷰알못(뷰티), 야알못(야구), 연알못(연애), 정알못(정치), 치알못(치킨), 커피알못, 클알못(클래식), 투알못(투자), 패알못(패션)

나. [[X]N(X=어떠한 특정 분야)잘알]N(x=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³¹⁾
 겼잘알(게임), 야잘알(야구), 여행잘알(여행), 치잘알(치킨), 커피잘알(커피), 파잘알(파스타), 패잘알(패션)

31) 일부 예시는 김정윤(2020), 143면에서 가져온 것임.

위의 예시 (16가), (16나)는 기존의 약어가 가진 특성처럼 원말의 각 기저요소(단어 혹은 어절)에서 한 음절씩 절단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말의 기저요소 ‘사람’에서 음절이 선택되어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일종의 환유적 표현으로 ‘사람’을 형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X]-알못]N, [[X]-잘알]N와 같은 유추적 틀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란 의미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X]-알못]N, [[X]-잘알]N처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 틀에 의한 유추가 형성되고 이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17) 가. [세젤-[X]]N(세상에서 제일 [X] 사람)

세젤귀(귀여운), 세젤멋(멋있는), 세젤예(예쁜), 세젤무(무서운), 세젤섹(섹시한)

나. [[X]-또속]N([X] 또 속았음)

리(리플, reply)또속, 퀴(퀴팀, qtum)또속

다. [얼죽-[X]]N(얼어 죽어도 [X])

얼죽아(아이스), 얼죽코(코트)

라. [[X]-잘싸]N([X]지만/했지만 잘 싸웠음)

졌잘싸(졌지만), 탈잘싸(탈락했지만)

마. [[X]-완얼]N([X] 완성은 얼굴이다.)

패완얼(패션), 한완얼(한복), 헤어완얼(헤어스타일)

바. [패완-[X]]N(패션의 완성은 [X]이다.)

패완얼(얼굴), 패완몸(몸매)

그리고 위에 제시된 (17)에서도 유추적 기제가 작동되어 형성된 경우다. (17가)는 원말의 관형어 자리에 즉 ‘어떠한’ 자리에서 대치 조작을 통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경우이고, (17나), (17다)는 ‘무엇’에 해당하는 자리에 대치 조작이 일어나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라)는 원말의 서술어 자리에서 대치 조작이 일어난 경우이고, 마지막 (17마, 바) ‘패완얼’은 [[X]-완얼]N([X] 완성은 얼굴이다.), [패완-[X]]N(패션의 완성은 [X]이다.)처럼 두 가지 유추적 틀이 형성되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처럼, 최근 약어에서도 유추적 틀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V. 結論

최근에는 신어 유형 중에서도 약어의 생산성이 비교적 높아 주목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최근에 나타난 약어에 주안점을 두고 관찰하였는데, 기존의 한자어 구(句)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형식이 줄어든 것이 아닌, 원말이 어중 제약을 받지 않는 동시 원말이 몇 개의 단어 나열, 혹은 구(句), 절(節), 문장 등 다양한 원형식이 관찰된다. 이처럼 원말의 어중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약어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 새로운 약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선, 원말 기저요소(단어 혹은 어절)의 개수에 대응되지 않는 음절 수를 가진 약어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원말이 문장일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일부 약어에서는 원말의 기저요소를 대체하는 근거단어가 선정되고, 그 선정된 단어에서 음절이 선택되어 약어에 관여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약어는 일반적으로 원말이 존재하고 원형식으로 복원이 가능한 데, 일부 약어에서는 원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약어는 원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의 약어에서는 의미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약어로 형성되기 이전에 의미가 확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특히 기저요소에서 ‘사람’은 주로 ‘사람’을 뜻하는 영어 파생 접미사가 대체되어 약어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사람’은 약어 형성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환유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약어는 하나의 유추적 틀로 이루어져 이에 기대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X]N(x=어떠한 특정 분야)잘알]N(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 ‘[[X]N(x=어떠한 특정 분야)알못]N(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떠한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거나 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빈칸에 채워 즉흥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생산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최근에 나타난 약어에 주안점을 두고 약어가 갖는 새로운 특징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사실 지금까지 약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척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약어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특징들을 밝혔다. 이는 후속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료일 것이라 기대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_____,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 _____, 『2016년 신어 자료집』, 2016
- _____, 『2017년 신어 자료집』, 2017
- _____, 『2018년 신어 자료집』, 2018
- _____, 『2019년 신어 자료집』, 2019
- 고영근,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9
- 김창섭,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1996
- 남길임 외, 『신어 2020』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언어, 한국문화사, 2021
- 이재현, 『현대 국어 축소어형의 사용 양상 연구』, 역락, 2010
- 최형용 외, 『한국어 신어 형성 연구』, 역락, 2022
- Bauer, L., English Word-form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_____, A Glossary of Morphology,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4
- 김정윤, 「4음절 형식 두음절어의 특징과 사용 요인」, 『반교어문연구』 56, 반교어문학회, 2020
- 노명희,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국어학회, 2010
- _____, 「신어에 나타나는 약어의 특징과 통합적 혼성어」, 『국어학』 91, 국어학회, 2019
- 송철의, 「준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23,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93
- 이선영,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_____, 「외래어 신어의 몇 가지 양상」, 『국어학』 87, 국어학회, 2018
- 이은섭,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형태론, 2007
- 이호승, 「국어 혼성어와 약어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39, 개신어문학회, 2014
- 정미령, 「韓國語 混成語에 대한 연구-2016~2020년 신어자료집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3
- 채현식, 「대치(代置)에 의한 단어형성」, 『형태론』 5(1), 형태론, 2003
- _____, 「계열관계에 기반한 단어 분석과 단어 형성」, 『형태론』 14(2), 형태론, 2012
- 최유숙, 「혼종 신어 외래요소의 한국어 형태소화」, 『語文論集』 78, 중앙어문학회, 2019
- 최형용, 「신어 형성에서 유추의 역할은 무엇인가」, 『형태론』 23(2), 형태론, 2021
- Cannon, Garland, Abbreviations and acronyms in English word formation. American Speech 64 (2), 1989

- Mattiello, E., Extra-Grammatical Morphology in English : Abbreviations, Blends, Reduplicatives, and Related Phenomena, Berlin : Mouton de Gruyter, 2013
- _____, Analogy in Word-Formation, Berlin : Mouton de Gruyter, 2017

Modern Abbreviations New Characteristics — From 2016 to 2020 Neologism

Zheng, Meiling

Recently newly created abbreviations are often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xisting abbreviations. In general, an abbreviation is formed by selecting one syllable from each of the basic elements (words or phrases) participating in the original words. Recently, the original words has a complicated form, so the number of syllables of the abbreviation can no longer be determined based on the number of basic elements. Also, in the case of ‘Yeoheomleo, 여혐러(a person who dislikes and hates women)’, some basic elements are replaced with ‘hyeomo, 혐오(aversion)’, and then the representative syllable ‘혐(hyeom)’ is selected and seems to be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the abbreviation. And here, ‘sa-lam(사람)’ was not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the abbreviation, and was replaced with the English suffix ‘er’. In fact, ‘sa-ram(사람)’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an abbreviation, or is often replaced with an English suffix meaning ‘person’. In addition, it is common for abbreviations to inherit the meaning of the original words, but some abbreviations show a phenomenon of expanding meaning. Lastly, in recent abbreviations, the number of shared families increases over time, forming an analogy framework to create new words.

Key Words : Abbreviation, Base Element, Syllable Selection, Derivative Affix
Involvement, Analogy in Word-Formation